

오늘의 날씨와 생활7월 9일 목요일 음 5월 25일 (2월)

기상정보

호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4~25℃, 낮 최고기온은 28~31℃로 예상된다. 늦은 새벽까지 산지 중심 곳에 따라 비가 올 예정이니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30%
20%	성 산	30%
20%	고 산	30%
6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많음 24/31℃

모레 ☀ 맑음 25/33℃

월드뉴스

美·이란, 호르무즈 통제권 놓고 재충돌

MOU 이후 공습 주고받아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을 통해 전면전 재개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다시 무력충돌에 빠져들었다.

양국은 아직 MOU 파기 입장을 내놓지 않아 외교적 소통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잠정적 합의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다.

미국과 이란은 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서로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공습을 주고받았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80여 개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고,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 내 미군 시설 85 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모흐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연합뉴스

이번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보복과 재보복의 악순환을 재현한 꼴이 됐다. 이란은 MOU를 근거로 통제권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국제수로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자의적 해석으로 잠정 합의의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목요일론

임택규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장·공학박사

현행 도시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미래 도시의 공간체계를 마련하고 토지수요 등의 양적 규모를 사전에 결정하지만 저성장·인구 감소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제 주민생활과 밀접한 근린단위의 공간 관리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듯 경제·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3년 정부에서는 ‘생활권 도시계획의 제도화’를 발표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부문 계획인 생활권계획을 법제화하였다. 제주도

특별기고

부공남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새로운 제주교육의 문이 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출범과 함께 ‘모든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는 희망찬 교육지표를 도민들 앞에 약속했다. 이 지표는 단순한 선언적 슬로건이 아니라, 모든 아이가 제주교육이라는 무대에서 저마다의 꿈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아이들에게 집중하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 제주교육의 출발선 위에는 이 지표를 무색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놓여 있다. 바로 제주도의회 분회의를 통과한 ‘정부부교육감 신설 조례’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회를 통과한 조례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육청을 향해 정부부교육감

제주 2040+ 생활권 구상

역시 도시계획 정책 흐름에 맞춰 지난 도정에서 ‘15분 도시’ 계획을 통해 제주도 생활권역을 총 30개 행복생활권으로 분류해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도시와 관광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이 되는 관광특화 도시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했다. 대도시 지역에 적용할 ‘15분 도시’ 계획을 근간으로 삼은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실질적인 생활권계획 수립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새 도정의 시작에 즈음하여 민선 9기 주민생활 밀착형 도시계획으로 ‘제주 2040+ 생활권’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활권의 규모와 기능,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보다 생활권 규모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상이다. 주민들은 생활권 내에서 20분 이내에 행정·교육·의료·문화 등 주요 도시서비스를 이용하고, 생활권 간에는 핵심 거점을 40분 이내에 연결하는 간선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주민생활에 적합한 생활권을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인 광역 교통체계로 연결하는 제주형 생활권 모델이다.

‘2040+’는 단순히 2040년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활권 내 20분 서비스 접근, 핵심 거점 간 40분 연결,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제주형 도시 비전을 함께 담고 있는 개념이다. 시간적 접근성과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을 상정하는 제주형 생활권 브랜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시가지 보행 및 자전거 도로망

을 정비하고, BRT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과 환승체계를 구축해 생활권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급행·간선·지선·마을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위계적으로 구축하고, 광역·거점·읍·면 환승센터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대중교통 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주 2040+ 생활권’은 주민생활을 중심으로 행정·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과 대중교통체계를 함께 재설계해 제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제주를 준비하기 위한 생활권계획의 수립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교육 시선 정치권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있어야

임명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다면, 정부부교육감 임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만약 이러한 여론에 밀려 정부부교육감을 임명하게 된다면 이는 ‘모든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겠다는 약속보다 ‘정치를 주인공으로’ 대접하는 꼴이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이 정부부교육감 제도에 대해 여러 교육단체와 시민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교육계 안팎에서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정부부교육감 신설이 왜 부적절한지 여러 근거를 들어 지적했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교육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오직 교육적 전문성에 기반해 운영되어

야 한다. ‘정부(政務)’라는 이름의 고위직은 교육자치 영역에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둘째, 제주의 교육환경은 정부직 부교육감을 별도로 둘 만큼 조직 규모가 크지 않다. 유보통합이나 돌봄 등 대외 협력 과제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제주는 학생 수와 교육행정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

셋째, 행정 효율성과 예산 측면에서도 기존 행정부교육감 체제만으로도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부교육감 신설 조례’는 교육적 고뇌의 결과라 아니다. 정치적 필요성이 앞선 제도로 신성한 교육 영역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외 협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퇴직 관료나 정치권 인사를 위한 ‘위인설관(偉人設官)’이라는 비판 역시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이 제도는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의회를 존중하는 자세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청은 정부부교육감 임명을 서두르기보다 해당 조례의 재논의를 의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주교육의 주인공은 정치인도 고위관료도 아니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우리 아이들이다. 교육청의 모든 시선은 오직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 교육청은 신성한 교육의 전당에 정치의 자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도민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소신 있게 걸어가는 교육행정을 지지할 것이다. 아울러 제주도의회 역시 결사해지의 자세로 교육에 정치 논란을 불러온 ‘정부부교육감 신설 조례’를 스스로 재검토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랜드보청기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고품질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살충제 훈제 전화 주시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봉묘목 생산·판매 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교접, 접순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봉묘목」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굴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콘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감굴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굴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원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체라몬

※ 포트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하굴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굴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